

2분기 경제성장률 0.6%... 年 2.9% 목표달성 '경고등'

정부·민간소비 '최저치' 기록

건설·설비투자는 마이너스

교역조건 악화로 GNI 1.0% ↓

경제성장에 '경고등'이 켜졌다. 전년 동기 대비 올해 2분기 경제성장률은 2.8%로 정부와 한국은행의 전망치(2.9%)보다 낮았다. 정부·민간소비가 부진하고 건설·설비투자가 마이너스를 기록한 탓이다.

한은이 4일 발표한 '2018년 2분기 국민소득(잠정)'을 보면 2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전분기보다 0.6% 증가했다.

지난 7월 발표한 2분기 속보치(0.7%)보다는 0.1%포인트 내렸다. 설비투자 증가율이 속보치보다 0.9%포인트 오른 반면 건설투자(-0.8%포인트), 수출(-0.4%포인트), 수입(-0.4%포인트)은 낮아졌다.

<국내총생산에 대한 지출>

	2016				2017				2018	
	1/4	2/4	3/4	4/4	1/4	2/4	3/4	4/4	1/4	2/4
국내총생산(GDP)	0.6 (3.0)	0.8 (3.5)	0.4 (2.7)	0.7 (2.6)	1.0 (2.9)	0.6 (2.8)	1.4 (3.8)	-0.2 (2.8)	1.0 (2.8)	0.6 (2.8)
민간소비	-0.2	0.8	0.5	0.3	0.5	1.0	0.8	1.0	0.7	0.3 (2.8)
정부소비	1.7	0.6	0.7	0.5	0.6	1.2	1.9	0.5	2.2	0.3 (4.8)
건설투자	5.6	3.2	2.2	1.0	4.2	0.9	1.1	-2.3	1.8	-2.1 (-1.5)
설비투자	-7.1	2.7	1.6	6.5	4.5	4.3	0.2	-0.7	3.4	-5.7 (-3.0)
지식재산생산물투자	0.9	1.5	0.7	0.7	0.3	0.5	1.5	1.1	0.3	-0.7 (2.2)
재고증감	-0.4	0.0	-0.1	0.1	0.3	0.2	-0.7	0.8	-0.1	0.0 (0.0)
수출	-0.2	0.8	1.4	-0.6	2.1	-2.7	5.6	-5.3	4.4	0.4 (4.8)
수입	-1.3	2.3	2.4	0.1	4.9	-1.0	3.2	-2.9	4.9	-3.0 (2.0)

(계절조정계열 전기대비, %)

민간소비는 준내구재와 서비스를 중심으로 0.3% 증가하며 지난 2016년 4분기(0.3%) 이후 1년 6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정부소비도 물건비 지출이 늘면서 전분기보다 0.3% 증가해 2015년 1분기(0.0%) 이후 3년 3개월 만에 가장 부진했다.

건설투자는 주거용 건물건설과 토목건설 투자가 줄며 2.1% 감소했다. 설비투자는 기계류와 운송장비가 모두 줄어 5.7% 하락했다. 설비투자는 지난 2016년 1분기(-7.1%) 이후 2년 3개월 만에 가장 낮았다.

수출은 반도체와 비거주자 국내소비

등이 늘어 0.4% 증가했다. 수입은 기계류와 운송장비 등이 줄어 3.0% 감소했다. 수입은 지난 2011년 3분기(-4.2%) 이후 6년 9개월 만에 가장 낮은 성장률을 기록했다.

경제활동 별로 보면 제조업은 전기 및 전자기기, 석유 및 화학 제품 등을 중심으

로 전분기보다 0.6% 성장했다. 서비스업은 부동산·임대업이 줄었지만 금융·보험업, 도소매·음식숙박업 등을 중심으로 0.5% 늘었다.

건설업은 주거용 건물건설과 토목건설이 줄어 3.1% 감소했다. 이는 지난 2012년 1분기(-4.7%) 이후 6년 3개월 만에 최저 수준이다.

2분기 실질 국민총소득(GNI)은 전분기보다 1.0% 감소했다. 교역조건이 악화하고 국외 순 수취요소소득의 적자 폭이 확대됐기 때문이다. GNI는 한 나라 국민이 일정 기간 국내외에서 벌어들인 임금, 이자, 배당 소득 등을 합친 지표다.

2분기 총저축률은 34.6%로 전분기보다 0.3%포인트 내렸다. 최종소비지출(1.5%)이 국민총처분가능소득(1.1%)보다 더 큰 폭으로 늘어난 영향이다. 국내총투자율은 건설과 설비투자 감소로 전분기보다 0.4%포인트 하락한 31.0%를 기록했다. /김희주 기자 hj89@metroseoul.co.kr



현대모비스천진공장.

현대모비스, 中 성공신화 글로벌로 올해 전세계 수주 '70억 달러' 순항

현대모비스가 사드 여파 등의 이유로 지난해 어려움을 겪었던 중국 시장에서 올해 헤드업 디스플레이(HUD)와 프리미엄 사운드시스템, 전동식 조향장치(MDP), 헤드램프 등 첨단 제품을 중심으로 수주에 잇따라 성공했다. 올해 70억달러 글로벌 수주 목표 달성에 한 발짝 다가섰다.

4일 현대모비스에 따르면 올 상반기까지 중국시장 수주규모는 약 4억5000만달러로, 지난해 전체 수주량 대비 1.5배 가까운 실적을 달성했다. 현대모비스는 중국 시장에서 지난 2015년 1억4800만달러, 2016년 1억5100만달러에 이어 2017년에는 2억8900만달러 규모를 수주한 바 있다.

전기차 시장 등 중국 미래차 시장이 크게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의 로컬 완성차 업체들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이에 현대모비스는 중국의 주요 로컬 업체들과 전기차 업체들을 대상으로 핵심 부품 공급을 확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전지식 주차 브레이크(EPB), 전동식 조향장치(MDPS), 프리미엄 사운드 시스템, 헤드램프, HUD 등으로 제품 다양화와 고급화를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최근에는 자율주행 센서 등 미래형 자동차 첨단 부품들까지 수주 대상 제품을 확대하는 등 앞으로 중국 시장에서 수주 활동에 더욱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현대모비스 관계자는 "글로벌 품질 경쟁력을 바탕으로 한 핵심부품 중심으로 중국 시장 점유율을 확대해 왔으며, 올해

는 고부가가치 첨단 제품 수주에 연이어 성공하면서 수주 규모를 큰 폭으로 늘릴 수 있었다"며 "첨단 부품을 통한 회사의 브랜드 가치가 높아짐에 따라 올해 중국 시장에서 10억 7000만달러의 수주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기대했다.

이처럼 올해 중국 시장을 비롯한 글로벌 시장에서 잇단 대규모 수주에 성공함에 따라 성장에 가속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현대모비스는 지금까지 여러 글로벌 고객사들과 신뢰를 쌓아오며 2015년 5억달러의 수주 규모를 2017년에는 60억달러까지 2년간의 짧은 기간에 글로벌 수주 물량을 12배나 끌어 올린 바 있다. 올해 중국 시장을 비롯한 글로벌 시장에서 잇단 대규모 수주에 성공하며 이러한 성장에 가속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현대모비스 관계자는 "글로벌 고객사들과 공고한 협력관계가 강화되면서 중국 시장은 물론 북미, 유럽, 일본 등에서 대규모 추가 수주가 기대되는 데다 공급 제품도 고부가가치 첨단 사양으로 발전하고 있다"며 "올해는 전 세계 시장에서 해외 완성차 메이커를 대상으로 70억 달러 수준의 수주를 달성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고 전했다.

현대모비스는 이러한 추세를 이어가 2022년에는 해외 수주 100억 달러를 달성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부품사업 전체 매출의 40% 이상을 글로벌 완성차로부터 달성하겠다는 취지다. /양성운 기자 ysw@

500가구 넘는 아파트 동대표 중임 '가능'

국토부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범외경력 조회·교육방법도 포함

앞으로 500가구가 넘는 공동주택도 동대표를 중임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4일 입주자대표회의의 원활한 구성 및 운영을 위해 동별 대표자 중임제한 완화 대상을 확대하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11일부터 공동주택 동별 대표자 중임제한이 제한적으로 완화

된다.

현재 500가구 미만 단지에만 제한적으로 완화돼 있는 중임 제한을 500가구 이상 단지에도 완화, 동일 규정을 적용한다.

선출공고를 2회 했음에도 일반후보자가 없는 경우엔 중임 제한 후보자도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중임제한 후보자는 일반 후보자가 있는 경우 자격을 상실하며, 해당 선거구 입주자 등의 과반수가 찬성해야 동대표가 될 수 있다.

이는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는 공동

주택 소유자의 거주 비율이 50~60% 정도에 불과하고 ▲중임제한 규정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구성(4인 이상)이 안 되거나 ▲의결정족수(정원의 과반수 찬성) 미달로 입대가 비정상적으로 운영됨에 따른 입주자·사용자의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다.

공동주택관리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시행령도 개정됐다.

범외 경력 조회 대상에 동별 대표자를 추가하고,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에 대한 교육 방법·절차 등의 적용 대상에 입주자 등을 포함했다. /채신화 기자 csh9101@

건강관리·감염예방 준수사항 위반 '산후조리원' 공개



앞으로 산모·신생아의 건강관리 및 감염예방 관련 준수사항을 위반한 산후조리원이 공개된다.

보건복지부는 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모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14일부터 산모·신생아의 건강관리 및 감염예방을 위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산후조리원의 명칭, 소재지, 위반사실 등이 시·군·구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된다.

모자보건법상 명시된 건강관리·감염예방을 위한 산후조리업자의 준수사항은 ▲산모·신생아의 건강기록부 관리 ▲소

독 실시 ▲감염 또는 질병이 의심되거나 발생 시 의료기관 이송 ▲산후조리원 종사자 건강진단 매년 실시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는 사람의 산후조리원 종사 금지 등이다.

아울러 산모나 신생아에게 질병이나 감염이 의심되거나 발생하여 의료기관으로 이송한 사실을 관할 보건소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지 않은 산후조리업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 기준금액이 기존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인상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모자보건법 개정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후속 조치의 일환이다. /박인용 기자 parkiu7854@

정부·지자체 "남해대교 인근 관광명소로 키운다"

정부와 지자체가 남해대교 주변을 지역 관광명소로 조성하기 위해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경남 남해군·하동군과 함께 '남해대교 관광자원화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지난 1973년 건설된 남해대교는 국내 첫 현수교로, 하동군과 남해군 사이에 있는 노량해협을 이어 45년간 지역 주민과

관광객에게 이동 편의를 제공해 왔다.

그러나 남해대교의 노후화와 늘어난 교통수요에 대한 원활한 처리를 위해 노량대교가 오는 12일 준공된다. 이렇게 되면 남해대교는 기존 국도 19호선 구간과 함께 국도에서 폐지되고 지자체로 이관돼 차량 통행이 급감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국토부와 남해·하동군은 남해대교와 교량 양측 지역을 관광명소로 탈바

꿈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기로 하고 이를 위한 연구를 진행하기로 했다.

'남해대교 관광자원화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용역'에는 사업 여건 조사·분석, 주탑·상판 등을 활용한 관광시설 계획, 교량 양안의 개발계획, 사업 타당성과 경제성 분석 등이 포함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내년 초까지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를 마무리하고, 지역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뒤 최종 사업을 결정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채신화 기자